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이 공부에서 어떤 실수도 하지 마라. 불멸하는 지식의 보석들로 계속해서 너희의 앞자락을 채워라. 없어질 부를 뒤쫓느라 소득을 벌기를 멈추지 마라.
- 질문:** 아버지와 똑같이 자비로워지는 자녀들을 나타내는 표시는 무엇이나?
- 대답:** 1) 그들은 지식에 도취되어 지식의 보석들을 스스로 훈습하고, 남들에게 지식의 주사를 계속 놔줘서 사악한 지시를 따르는 데서 모든 이를 해방시킬 것이다.  
2) 그들은 바바가 하는 말은 뭐든 적어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들은 지식의 대양을 되새기며 변함없이 명랑하게 지낸다.
- 노래:** 우리들의 순례는 독특합니다.

옴 산티. 바라트의 사람들은 쉬바의 탄신일이 언제인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인 쉬바가 언제 몸에 들어오는지 모른다. 너희 자녀들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쉬바가 언제 몸에 들어오는지 등수대로 안다. 그가 밤에 강림했다는 것이 기억되지만, 어떤 밤이나? 평범한 낮과 밤이나, 다른 어떤 밤이나? 바라트의 사람들은 이를 모른다. 그들은 쉬바가 아닌, 크리슈나가 한밤중에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해왔다. 그들은 쉬바를 믿지만 그가 언제 태어나는지는 모른다. 쉬바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공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강림하는 날은 모든 이에게 전체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다. 모든 이가 슬픔을 겪을 때 그들은, “오 정화자여, 오소서! 오 신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소리쳐 부른다. 심지어 교황도, “오 하느님 아버지, 이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한다. 그들은 서로를 죽일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의 말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주옵소서! 가족 중 누군가 버릇이 없어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신이여, 그는 사악한 지시를 따르고 있으니 그에게 좋은 지시를 내려주소서!”라 한다. 그들은 심지어 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신이 무체이며 편재한다고 얘기한다. 그럴 경우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 바바가 어떻게 브라마의 평범한 몸에 들어가는지 너희 자녀들은 안다. 바라트의 사람들은 브라마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모른다. 다다의 그림을 보면 그들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들은 브라마가 비슈누의 배꼽에서 태어났다고 믿지만, 다른 이의 배꼽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슈누가 어디의 주민이나? 그들은 어느 누구의 전기도 모른다. 브라마가 비슈누를 통해서 모든 베다들의 핵심요지를 들려주었느냐? 그들은 경전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브라마를 묘사해왔다. 그것도 역시 가능하지 않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우선 처음에 너희 자녀들은 영혼의식으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한다. “영혼인 나는 두 귀를 통해서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우리 영혼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거둬 잊는다. 구원의 공여자이며 지식의 대양인 분이 여기 앉아서 너희 자녀들을 가르친다. 이것이 너희 자녀들 외에는 아무의 지각에도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존경이 없다. 신이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는 단 1초도 이 공부를 거르지 않을 것이다. 이 공부는 30분에서 45분쯤 지속된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그저 나를 기억해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나머지는 모두 확장이다. 바바가 설명하는데, 너희가 신봉의 길에서 해온 것처럼 모든 베다들과 경전들을 공부하고 기부하고 자선을 행하는 것은 드라마에 모두 정해져 있다. 시간의 반 동안은 지식이 있고, 나머지 반 동안엔 신봉이 있다, 즉 브라마의 낮과 브라마의 밤이 있다. 보통의 낮과 밤에 대해서는 동물들까지 알지만, 브라마의 낮과 브라마의 밤에 대해서는 위대한 학자들도 모른다. 너희 자녀들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살며 너희의 사업 등을 계속하면서 공부도 역시 해야 한다. 너희는 이것에 부주의해지지 말아야 된다. 바바는 아무개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규칙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너희는 낙제할 것이고, 너희가 받을 지위는 낮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없어질 부에 대해 탐욕스럽다. 그들은 불멸하는 지식의 보석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이를 안다. 오직 이 불멸하는 보석들만이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정부는 부를 많이 축적해 놓은 자들을 뒤쫓는다. 죽음이 오면 사람이 창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들이 오면 그들은 새파랗게 질린다. 세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바바가 설명하는데, 자녀들아, 이제 시간이 얼마나 조금 남았나 보라. 이 죽음의 나라는 지옥이라고 불린다. 자기들이 불순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제 스스로의 지시를 따른다. 그들은 여러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평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들을 연다. 심지어 기독교도들끼리도 같은 종교 안에서 서로 싸운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들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들은 완전히 고아들이다. 리시들과 무니들조차 창조자도, 피조물의 처음, 중간, 끝도 모른다고 얘기한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는 주님이며 주인인 분을 모르느냐? 너희들은 주인을 믿으니 그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바가완, 이슈와르, 신 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다. 사실 그는 아버지가 아니냐? 그는 우리들의 창조자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있다. 우리 모두 신의 가족들과 같다. 유산은 틀림없이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서

받는다. 우리는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가족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디에나 편재한다면 그것은 가족일 수 없다. 우리들은 창조주, 주인의 가족이다. 아버지는 5천 년 전에 정말로 우리에게 유산을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는 우리들에게 삶 속의 해방을 유산으로 주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해방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참으로 쉽다! 행복의 수은주가 솟아올라야 마땅한데, 그러나 오 마야!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자마자 마야는 너희가 잊게 만든다. 너희들은 아버지마저 잊는다.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속한다. 쉬브 바바가 브라마를 통해 너희를 입양했다는 것을 오직 너희들만 안다. 브라마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나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큰 브라마가 어떻게 비슈누의 배꼽에서 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 브라마가 앉아서 너희에게 베다에 대한 지식을 준다. 그가 어디서 그 일을 하느냐? 서틀 리전에서 하느냐? 그들의 지각에는 아무것도 자리 잡지 못한다.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차지할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나머지 모든 이들은 이것이 단지 너희의 상상일 뿐이라고 한다. 바바가 진정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믿는다. 그 다음에 너희 브라민들은 모든 이에게 가서 참된 기타를 들려줘야 한다. 모든 이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왕국이 등수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이가 다 똑같은 정도로 공부할 수는 없다. 너희들은 지식의 대양을 혼습하고 되새겨야 한다. 너희는 듣고 그것을 적어 두지만, 그 다음에 너희는 앉아서 바바가 오늘 너희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들에 대해 생각해라. 너희들은 모든 이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바바의 명령은 “이것을 너희의 피조물인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설명해라” 라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만든다. 저 무한한 아버지는 어떠한 행복도 경험하지 않는다. 그가 이르는데,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은 너희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오직 이것을 혼습해야만 너희가 도취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주사를 놔줄 수 있다. 바바처럼 자비로워져라! 사악한 지시를 따르는 데서 모든 이를 해방시켜라! 라마와 라반 사이에는 참으로 대단한 반목이 있다. 이것은 라반의 왕국이고, 그것은 라마의 왕국이다. 누가 그들을 정화시키는지 누가 그들을 불순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한다. 이 그림들은 모두 너희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오직 아버지만이 너희에게 세계 역사와 지리를 설명한다. 이 그림들 위에는 아주 좋은 글귀가 쓰여 있다. 무체인 신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온 세계의 종교와 정치에 관한 역사와 지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 자녀들은 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귀담아듣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이 그림들은 장님 앞의 거울이다. 나무 그림과 드라마의 그림은 아주 명확하다. 그것들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설명해준 후에 만들어졌다. 지금 이때에는 모든 이가 무지의 잠을 자고 있다. 너희 자녀들은 모든 이를 영적인 순례에 데려간다. 남들을 영적인 여행가로 만들려면 지식을 아주 많이 줘야 한다. 아주 깨끗한 지각이 필요하다. 이 낡은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머물러라. 너희들의 살아있지 않은 기념비가 놓인 곳에 너희가 앉아 있는 것도 역시 놀라운 기적이다. 그것은 살아있지 않고, 이것은 살아있다. 이것이 은밀한 비밀이다. 우리가 은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원의 기념비도 역시 은밀하다. 사원들을 지은 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 전시회에는 아주 좋은 글도 써 놓아야 한다. 너희들은 설명도 역시 아주 잘해야 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사람들도 역시 많이 온다. 일부는 아주 잘 이해하는 반면, 나머지는 이것이 아주 좋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들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한다. 일부는 다음에 더 많이 이해하려고 오겠다고 한다. 바바는, “너희는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어렵다. 너희는 신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왕국을 세우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나는 왕, 왕비, 하녀나 하인이 될까, 백성이 될까?”라고. 마두반에 왔다가 그 도취감이 영원히 남을 정도가 되어 돌아가라.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 **국제회의와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아비야트 밥다다가 주는 신호들 :**

너희는 봉사를 위해 아주 좋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깨끗한 지각으로 그 계획들을 실제적인 형태로 옮겨라. 너희들은 봉사해도 되지만, 반드시 지식을 드러내야 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은 평화에 대해서 단지 말만 한다. 그들은 평화롭지 못함과 평화를 뒤섞는다. 겉으로는 모든 이가 “평화가 있게 하라!”라는 구호를 읊조린다. 평화롭지 않은 자들마저 평화를 위한 구호들을 읊조린다. 모든 이가 평화를 원하지만, 너희들이 무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권위를 갖고 얘기해라. 분위기를 보아가며 말하지는 마라. 너희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때에 따라서 그게 괜찮았지만, 이제는 땅이 준비되었으니 지식의 씨앗을 뿌려라. 그런 주제들을 가져라. 세상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너희들은 주제를 바꾼다. 그러나 오직 흥미를 가진 이들만 오게 해라. 너희들은 전시회, 회의, 세미나를 참으로 많이 가져왔다. 참으로 여러 해 동안 너희는 사람들을 토대로 한 주제들을 선택했다. 너희는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은밀한 형태로 머물 테냐? 이제는 너희 자신이 드러나게 해라. 특정한 때에 일어나야 할 일은 뭐든 다 일어났지만, 이제는 너희들 자신의 무대에 신의 폭탄을 터뜨려라.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의 머리가 돌아가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다는 말만 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남고, 그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격변이

있게 해라! 각자는 자기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 너희가 그들에게 몇 가지 요점을 줄 때는 권위와 사랑을 갖고 얘기해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것을 명확하게 하는 데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권위뿐이어서는 안 되고, 권위와 사랑, 양쪽 모두 있어야 한다. 밥다다가 언제나 이르듯이, 화살로 그들을 맞히되, 마사지도 역시 해줘라. 그들을 아주 잘 존경하되 너희의 진실도 역시 증명해라. 너희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신의 말씀이며, 너희들 자신의 얘기가 아니다. 사물을 망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단지 그림만으로도 기분 나빠할 텐데, 그러면 너희는 어찌 하느냐? 너희는 그 그림들을 치우지는 않겠지? 누군가의 앞에서 육신의 형태(브라마)로 도취감과 권위를 갖고 말할 때 영향력이 어떠했느냐? 싸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은 강연하는 방법도 역시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지식을 말하는 방법도 역시 공부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것을 공부해라! 너희들은 세상에 관한 면에서 너희들 자신을 바꿨고 너희 언어도 역시 바꿨다. 그렇게 세상에 관해서 너희들 자신을 바꿀 수 있었으니 너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하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그들이 말하는 데 대해 바바는 행복하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이것을 통해 해방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지식 없이는 해방과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요가 코스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떠난다. 여기를 떠나면 그들은 “신이 편재한다!”는 똑같은 말을 한다. 여기서 그들은 요가를 대단히 즐겼다고 하지만, 그들의 토대는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너희들의 힘의 영향력으로 변하지만, 그들 자신이 강력해지지는 못한다. 일어난 일은 뭐든 반드시 필수적이기도 했다. 그것은 아주 단단하게 말라붙은 땅을 일구어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정확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너희 샅티들은 너희의 힘의 형태를 발전시킬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사랑의 형태도 역시 발전시킬 테지만, 너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들의 마음과 지각을 변화시켜서 부정적인 그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너희들의 힘의 형태도 역시 드러날 것이 아니냐? 지금 그 형태를 드러내라!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그들은 행복해져서 돌아간다. 물론 그렇게 넘치는 안락과 많은 사랑, 환대를 받은 자들은 틀림없이 만족해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사랑은 다른 어디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충족되어서 여기를 떠난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힘의 형태가 된 다음에 가지는 않는다. 아버지 브라마의 봉사를 위한 계획과 너희가 실제 형태로 옮긴 그런 계획들을 보라!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에게 모든 전시회에서 설문지를 준비해두라고 이르곤 했다. 그 설문지들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들은 화살과 같지 않았느냐? 너희는 사람들에게 용지에 써달라고 청하곤 했다. 너희는 그들에게 뭔가 옳거나 틀렸는지 여부를 체크 표시하고 “네”나 “아니오”라고 쓰게 했다. 너희가 그들에게 용지에 작성해달라고 청하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계획들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양식에 따라 작성하게 했다. 너희들은 어떤 것이 옳거나 틀렸는지에 대해 빨리 양식을 작성하게 했지만,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양식에 따라 작성해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그들은 용지에 정확하게 작성할 것이다. 너희는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권위도 갖고 있고 사랑도 역시 있어서 존중도 유지되고 진실도 역시 증명되게끔 너희들끼리 그런 계획을 세워라. 너희는 그냥 그렇게 누군가를 모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가지들을 만들려는 목표도 역시 있다. 더 어린 자들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일은 태초부터 있어 왔다. 앗차.

#### **실천 요지:**

1. 이 낡은 세상 너머에 머물러라. 깨끗한 지각을 가지고, 지식을 hunsh하고 남들도 그것을 hunsh하도록 고취해라. 지식의 대양을 휘저어라.
2.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져서, 모든 이를 사악한 지시에서 해방시켜라.

**축복:** 계시와 약속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모든 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승리의 보석이 되어라.  
계시의 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의를 가지고 약속해라. 약속한다는 것은 너희의 목숨을 거기에 건다는 뜻이다. 너희가 설령 죽을지라도 너희의 약속은 깨지지 않게 해야 한다. 결의를 가지고 약속하는 자들은 상황이 어떻든 기만당할 수 없다. 그들은 목둘레에 걸린 화환, 즉 승리하는 보석들이 된다. 너희가 그렇게 결단력 있는 약속을 할 때 계시가 일어날 것이다. 계시와 약속의 균형은 모든 영혼이 밥다다에게서 축복을 받는 토대다.

**솔로건:** 사랑에 넋을 잃은 단계를 경험해라, 그러면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싸우느라 너희의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